

# “오늘의 참여로 마약 없는 건강한 내일 만들어요”

‘제39회 세계 마약 퇴치의 날’ 연합캠페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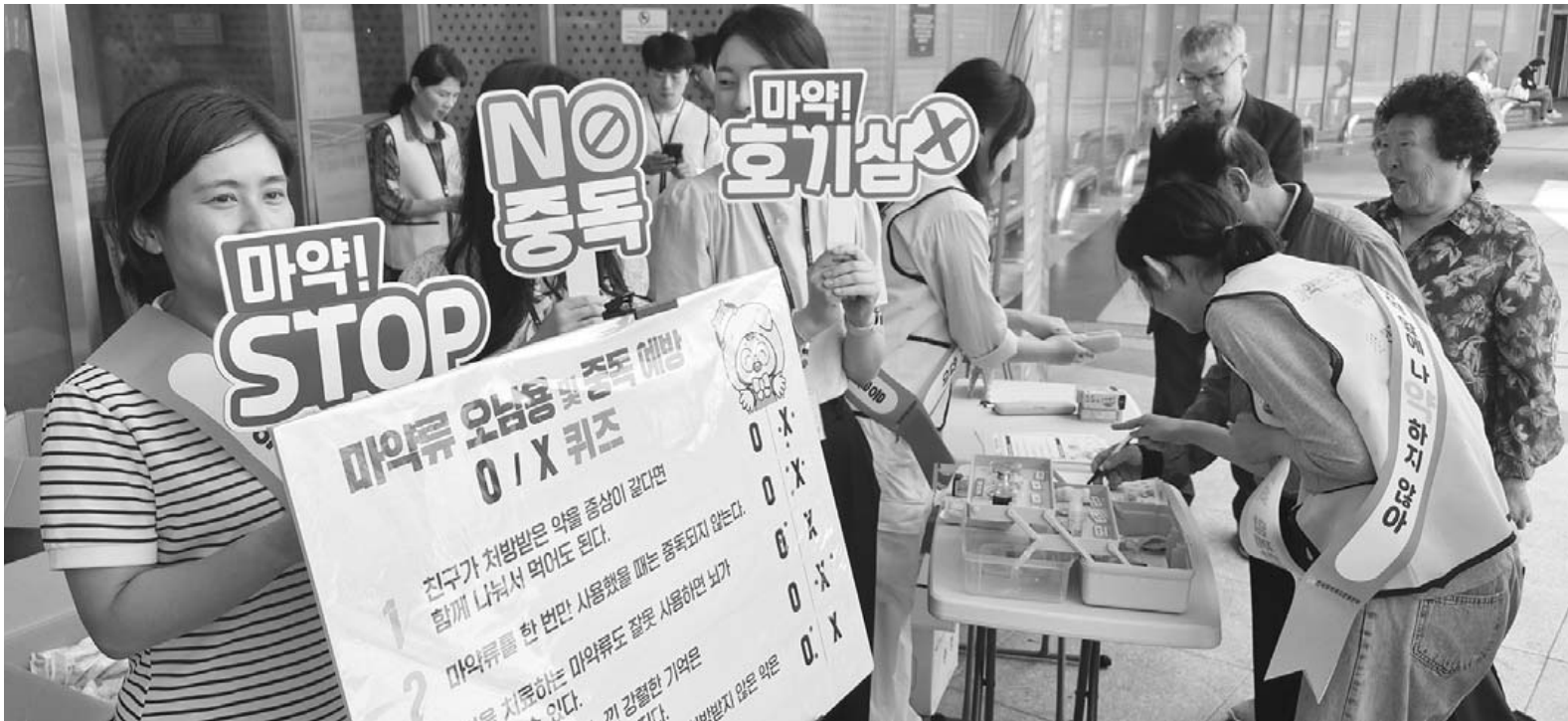
광주함께한걸음센터·14개 기관  
종합버스터미널서 대시민 홍보  
오남용 경각심 제고 부스 등 ‘눈길’

“마약은 단순한 호기심도 가져서는 안 됩니다. 항상 경각심을 갖고 조심해요!”

25일 오전 10시30분 광주종합버스터미널 광장에 울려 퍼진 이 같은 구호는 오가는 시민들의 귀를 사로잡았다.

이날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광주지부와 광주함께한걸음센터는 제39회 세계 마약 퇴치의 날(6월26일)을 앞두고 ‘전라권 마약류 중독 사회재활협의체’를 중심으로 광주시, 광주 5개 보건소 등 14개 기관과 연합 캠페인을 개최했다.

‘함께하는 오늘, 마약 없는 내일’을 주제로 열린 캠페인에서 60여명의 참석자들은 ‘마약 호기심 X’, ‘마약! STOP’, ‘마약 없는 건강한 사회, 함께 한걸음’, ‘마약 앞에 나약하지 않아’ 등의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시민들을 향해 들어 보였다. 비슷한 문구가 새겨진 어깨띠를 착용한 이들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광주지부와 광주함께한걸음센터는 제39회 세계 마약 퇴치의 날(6월26일) 하루 전인 25일 오전 광주종합버스터미널에서 ‘전라권 마약류 중독 사회재활협의체’를 중심으로 광주시, 광주 5개 보건소 등 14개 기관과 연합 캠페인을 개최했다. 사진은 시민들이 마약 관련 O× 퀴즈를 풀고 있는 모습. /주성학 기자

은 마약 관련 문제로 힘들 때 상담을 받는 방법이 적힌 리플릿과 기념품을 행인들에게 나눠주며 위험성과 중독 예방의 필요성을 알렸다. 한 시민이 “위험한 마약을 왜 하는지 모르겠

다”는 말에 한 참석자는 “맞습니다. 앞으로도 주변에 많이 알려달라”고 화답했다.

3번 게이트 부근 광장 한 칸에 마련된 체험 부스에선 국내에 주로 유통되는 실로사이빈, 카트,

대마 쿠키·초콜릿 등 여러 종류의 마약 모형이 전시됐다.

오가며 이를 보던 이들에게 광주함께한걸음센터 관계자들은 왜 마약에 빠지면 안 되는지 세

세하게 안내했다.

설명을 들은 후 시민들은 ‘마약은 한 번만 사용해도 중독된다’, ‘치료용 마약도 잘못 쓰면 뇌가 손상될 수 있다’ 등의 항목으로 구성된 O×퀴즈를 풀었다.

일부 시민들이 오답을 선택하자 센터 관계자들은 설명과 함께 올바른 정보를 전달했다.

광주 동구에 사는 이세윤(30대)씨는 “TV에서도 마약 문제를 많이 다루지만 오늘 퀴즈에 참여하면서 잘못 알고 있던 내용을 바로잡을 수 있었다”며 “우연히 접한 짧은 시간이었지만, 굉장히 유익했다”고 호평했다.

캠페인에 참여한 송성욱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최근 외국인 유입과 함께 마약 반입 시도가 늘고 있어 일반 시민들도 항상 경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강미량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광주함께한걸음센터장은 “젊은 층이 호기심에 인터넷을 통해 마약류를 구매하거나 자신도 모르게 중독되는 경향이 있는데 마약은 해서는 안 될뿐만 아니라 관심조차 가져선 안 된다”며 “늘 조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는 마약류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위해 24시간 동안 ‘1342 용기 한걸음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주성학 기자

## 檢, ‘아동 성매수’ 에이즈 확진자 ‘징역 10년’ 구형

동중 전과 다수 처벌에도 재범

신상 공개 등도…8월22일 선고

다수의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매매를 해 온 에이즈 확진자에 대해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형사11부(김송현 부장판사)는 25일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50대)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다시 열었다. A씨는 지난해 7월16일 16세 미만 중학생 B양을 자신의 차량에 태워 성매매하고 같은 달 30일 동중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 다른 미성년자도 유인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같은 혐의로 A씨

는 지난 3월 징역 5년을 구형받았다. 그러나 여죄 수사 과정에서 A씨가 다른 미성년자를 성매매했다는 추가 범행이 드러나면서 검찰은 이날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신상 공개와 전자장치 부착·보호관찰 명령, 어린이보호구역 통행금지 조치 등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A씨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하는 등 성폭력 범죄의 전과가 3회에 달한다”며 “에이즈에 걸렸음에도 피임 기구를 쓰지 않는 등 전과 매개 행위를 하기도 했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A씨의 변호인은 “비슷한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저지른 점에 대한선 변명의 여지가 없다”면서도 “이 사건의 내용이 최근 엄하게 처벌받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나 성착취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검찰의 구형은 다소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최후 진술에서 A씨는 “나쁜 죄를 지었다. 후회하고 반성한다”고 말했다. 재판을 마치기 전 재판부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범행한 이유를 묻자 A씨는 “채팅을 통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것 같다. 취향이 딱히 있었던 건 아니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오는 8월22일 A씨에 대해 선고할 예정이다. /안재영 기자

## 출소 4개월만 전자발찌 끊고 달아난 40대 ‘실형’

법원, 징역 1년 선고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났다가 공개수배 끝에 붙잡힌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2단독 박선운 판사는

25일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을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8)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교도소 출소 4개월 만에 절단기를 구입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 A씨는 지난 3월30일 오후 12시51분께 여수시 여전동 한 대형마트에서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달아나 공개수배됐다. 그는 택시와 버스 등을 이용해 이동했다가 이틀남 오전 경기 평택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강도죄로 복역하고 출소해 보호관찰소의 전자감독을 받고 있었다. /순천=정기 기자

## 생후 3개월 딸 판 친모 “더 나은 환경서 살라고…”

항소심서 주장…내달 16일 선고

생후 3개월 된 딸을 100만원에 팔아넘긴 친모가 항소심에서 입양 목적이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광주지법 형사4부(배은창 부장판사)는 25일 아동매매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A(30대·여)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열었다. A씨는 지난 2012년 7월 생후 3개월 된 셋째 딸을 불상의 매수자에게 현금 100만원을 받고 넘긴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피해 아동을 출산한 지 사흘 만에 광주 한 영아 임시 보호소에 맡긴 것으로 드러났다. 그로부터 약 3개월 만에 A씨는 임시 보호소를 찾아가 부모의 의무를 다하겠다고는 취지의 서약서를 작성하며 딸을 데리고 나오자마자 불상의 인물에게 현금이 든 봉투를 받고 아이를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1심에서 징역 3년을 구형한 검찰은 이날 “요청보다 낮은 형이 나왔음에도 항소하지 않았다”며 A씨의 양형 부담 주장의 기각을 요청했다. A씨의 변호인은 “어린 나이에 아이를 출산하고 당시 형편이 매우 좋지 않았던 터라 아이

가 더 나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입양을 보내려던 마음이었을뿐 돈을 받고 팔고자 하는 의도는 없었다”고 변호했다. A씨는 최후 진술 대신 준비해 온 글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6일 A씨에 대해 선고할 예정이다. /안재영 기자

완도 해상서 ‘트럭·운전자 시신’ 발견

완도 한 선착장 인근 해상에서 트럭과 함께 운전자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돼 해경이 수사에 나섰다. 25일 완도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11분께 완도군 소안면 가학리 인근 선착장 앞 해상에 1호 트럭과 사람이 빠져 있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한 완도해경이 차량과 약 3m 떨어진 곳에서 운전자로 추정되는 A(30대)씨를 구조했을 당시 그는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다. 추락한 차량은 마을 주민이 크레인을 통해 인양했다. 해경은 인근 CCTV 분석 등을 통해 차량이 바다에 빠지게 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완도=윤보현 기자

### 실리를 따진다면 가성비 좋은 피닉스입니다!

- 1. 믿을 수 있는 100% 국내공정
- 2. 신속하고 확실한 A/S
- 3. 합리적인 가격에 고품질 제품

고블 G-07 프리미엄  
럭셔리 프리미엄 상급자용

피닉스 K-07  
럭셔리 중상급자용

피닉스 G-01  
초보 입문자용

전 브랜드 할인 판매!  
중고 골프채 보상 판매!

### 장인의 기술

오랜기술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순수 국내제작으로  
정밀함과 기술로 정성을 다해 만든 국내 장인 제품입니다.

## ASTRO

### 최고의 명품 퍼크골프채 아스트로

A9 Nice Shot  
상급자를 위한 정교한 방향성, 비거리, 타구감 향상

소비자가격 ₩ 1,180,000

헤드	단봉나루 / 고탄성 카본 / 황동
샤프트	최고급 고탄성 카본 100% (8정55g)
길이	85cm / 83cm (여성)
중량	525g (±10g)

A100 Nice  
부드러운 타구감, 방향성, 비거리 최적화 / 골프엘보 완전해결

소비자가격 ₩ 1,380,000

헤드	단봉나루 / 고탄성 카본 / 황동
샤프트	신공법으로 설계 초고탄성 카본
길이	85cm / 83cm (여성)
중량	522g (±10g), 샤프트 50g

A5  
최적의 밸런스로 부드러운 스윙과 안정적인 타구감

소비자가격 ₩ 800,000

헤드	단봉나루 / 고탄성 카본 / 황동
샤프트	최고급 고탄성 카본 100% (중량90g)
길이	85cm / 83cm (여성)
중량	525g (±10g)

영무SP sports      062) 653-4141      광주 남구 대남대로 252 (백운동 644-33)      www.sunparkgolf.com

CMYK